

마가복음 10-11  
Tape #C2522  
By Chuck Smith

마가복음 10 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10: 1)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정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도 반복해서 이 사실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은 여전히 의문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야 만 한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잡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삼 일만에 부활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사 유대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즉 그분은 남쪽 예루 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 암몬 지방과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전처럼 사람들이 때를지어 예수께 몰려들었고, 예수님도 전처럼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10 : 2)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근거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과 상반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책잡아 예수님을 체포하여,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위배되는 것을 가르치는 이 단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 하거든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신 24:1)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사람들이 이 구절을 토대로 자신들이 하고자하는 행위에 대하여 변명의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유명한 유대 랍비들에 의한 가르침을 전승해 나가는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삼마이 학파의 가르침에 따르면,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란 결혼한 첫날밤 여자에게서 처녀성의 흔적이 없다는것, 즉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는것만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자와 이혼할 권리가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논리를 펴는 이 학파는 여자의 부정에 대하여 편견되고 제한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저지른 간음만이 유일하게 이혼을 성립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힐렐 학파는 여자의 부정 문제에 대해 매우 자유스러운 해석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여자가 남자가 좋아하는 식으로 옷을 입지 않는다거나, 여자가 소란스러워 옆집에까지 그 소리가 들린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조항들이 여자의 부정 요건이 됨으로 남자는 이런 이유들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여자와 이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에 ‘아카비’라는 한 랍비는 만일 남자가 자기 아내보다 자기를 더 기쁘게 해주는 여자를

발견했다면, 그것도 자기 아내의 부정 요건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런 이유를 근거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유롭게 해석함으로써 율법을 완전히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예수께 가져와서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대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 ( 10 : 4-13)

사실 힐렐 학파의 자유로운 율법해석으로 인해 사회는 혼란해지고, 안정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은 고아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의 율법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남자는 남자 한 사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도 여자 혼자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사,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될 때에만 완전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도움으로써 완전해지고, 남자는 여자를 도움으로써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중 어느 쪽도 혼자서는 완전하게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거룩한 이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결혼문제를 가르치심에 있어서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거룩한 의도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성에 맞게 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마음의 완악함으로 아주 많은 경우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용서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리고 결혼은 분명히 나누어 주는 위치에 서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누어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혼생활은 참아내기 어려운 상황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에 대한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는 만일 남자가 이혼하고자 한다면 여자에게 이혼증서를 써 주고 이혼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을 선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에 대하여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람이 자기 평생에 단 한 번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악한 사람들은 좀처럼 나누려 하지 않고, 기꺼이 양보하려 하지 않으며, 기꺼이 주려 하지 않고, 기꺼이 용서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결혼생활은 지옥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그들이 사랑을 통해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정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결혼과 이혼문제를 다루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람들이 결혼과 이혼문제를 그저 단순하게 한 번 해보는 차원으로 여기고 이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만일 우리의 결혼생활이 악화일로에 있다면 좋은 관계로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 주고 사랑하며 이해심을 갖고 진정으로 하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그러한 쓰디쓴 경험을 맛본 사람들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과 결혼은 했지만 서류상일 뿐이요 실질적인 결혼관계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영으로 한 몸을 이루지 못한 부부들, 또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결혼이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이혼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불행한 것은, 젊은 남녀가 서로 미친 듯이 사랑하여 결혼하고서, 서로에 대한 황홀감이 사라지자 그것을 못 견디고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은 신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결혼을 성례의 하나로 봅니다. 이 주장은 옳습니다. 결혼은 영적 사역의 외면적 표시입니다. 둘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에 의한 영적인 연합이 일어납니다. 적합한 사람과의 결혼은 지상 천국이 될 수 있지만, 적합하지 못한 사람과의 결혼은 지상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젊은 사람들과,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깊게 생각해 봐야 할 점입니다. 결혼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대로 해서는 안되고, 기도하면서 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편이 나중에 그 실수를 수정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혼하거나 재혼한 사람을 지옥불로 정죄하신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재혼해야 할 처지에 있다면 그 상황을 최선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십시오. “내가 전에도 이혼했었으니까 당신과도 이혼하는 것이 좋겠소” 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을 영접했습니까? 결혼했거나 이혼했거나 재혼한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우리와 맺어진 관계를 힘써 지속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밋세바와 잘못된 관계를 가졌고 후에 밋세바와 결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선지자가 다윗에게 “네 죄가 사함받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윗과 밋세바는 그들의 첫 아기를 잃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혼한 상태이거나, 서로의 성격이 맞지 않아 억지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문제점을 극복해 나갈 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다시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여자가 남편을 버릴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남자가 아내를 처녀가 아니었다고 거짓으로 고소하거나, 남편이 간음을 행한 경우에는 여자에게 이혼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편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0: 14)

오늘날에도 축복받기 위해 랍비에게 가는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작은

키에 긴 회색 수염이 있는 예멘 사람인 한 랍비가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통곡의 벽 (The Wailing Wall) 근처의 큰 마당을 거닐면서 기도문을 아주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가 많은 젊은 랍비 후보생들에게 대단히 존경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랍비에게 가서 머리를 들이대면 그는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빌어준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도 전통에 따라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분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이가 한 살이 되면 대개 랍비에게 데려가 복을 빌어달라고 요청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기대를 갖고 온 이 어린 아이들의 부모를 꾸짖은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 내어 줄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귀찮아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0:15)

어린 아이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린 아이가 무신론 같은 것은 배워야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수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 머리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을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가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끌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느니라.” (10:18)

많은 주석가들이 이 구절을, 예수님은 자신을 선하다고 부른 이 사람을 꾸짖으신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예수께서 이 사람의 의식을 깨우치려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자신이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깨우쳐 주려고 반문한 것입니다. 이 해석이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조화를 이룹니다. 예수께서 만일 그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이어서 “너는 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할 필요가 있다. 나를 따르라” 고 하신 말씀은 참람죄에 해당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 “너는 네 삶의 중심에 그릇된 것, 즉 돈을 모시고 있구나. 네가 만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의 중심이 새로워져야 한다. 너는 너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 나를 따라 오너라” 고 하심으로써 그의 의식을 깨우치려 하신 것입니다.

“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 하시니.” (10: 21)

앞에서도 지적한 대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부수적으로 하신 말씀일 뿐입니다. 중심 말씀은 “와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좃으라” 였습니다 .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로 막았던 것은 그의 수많은 재산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갖는 관계나 직업, 우리의 야망이나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십자가 를 지고 예수님을 좃는 것을 막고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바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젊은이의 하나님은 돈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의 거짓 하나님을 제거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참 하나님을 알라. 네 중심에 모셔라. 나를 따르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야 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만 한다는 측면에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며, 영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제거해 버리십시오.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청년에게는 돈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의 이 청년은 돈이 너무 많아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히 생각한 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의 종을 불러 “나의 전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너는 다음에 보자. 나는 예수님을 따르련다”고 했는지 우리는 알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가 집으로 돌아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가 그저 돈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남은 여생을 살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둘러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10:23-24)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단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부’는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있다는 표로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하신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심히 어렵도다”는 말씀은 제자 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철학을 완전히 뒤엎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당시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사업이 번창하여 재물이 늘어가는 것은 그 사람의 영성의 표시라고 여깁니다. 심지어 그들은 “경건이 번창의 한 방법” 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놀란 제자들을 보시고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부르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바늘귀’는 한 도시의 주요 진입문에 딸린 작은 문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밤이 되면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을 닫게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사람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난 작은 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문을 통과하려면 낙타에서 내려서 기어 들어가야만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을 ‘바늘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본문에서 언급하신 ‘바늘귀’를 기어 들어가야만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문을 가리키시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많은 땀과 노력을 들이면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은 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든지간에 예수님은 ‘불가능’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인간의 노력과 분투로 가능한 범주에 넣으려고 하는 시도는 항상 있어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라. 진실 한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할수있다” 는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불가능’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10: 26-27)

제자들이 경악한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수 없다면 누가 들어갈수 있겠느냐?” 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노력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해도, 그 행위가 아무리 올바른 것이라 해도, 그 삶이 아무리 진실한 것이라 해도,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겐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만일 사람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유일한 길을 제공하셨는데, 우리가 생명의 길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밖에 있는 것이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인간의 능력 속에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 하는 것은 최대의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자하셨다가 포기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특정한 사람들을 들면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철저히 오해한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는 절대로 말할수 없습니다. 제가 맡아서 애쓰다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내놓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것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꺾박을 곁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자로서 먼저 될자가 많으니라.” (10 : 28-31)

베드로는 많은 재물 때문에 되돌아간 그 청년과는 달리 자기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 유대교의 강한 전통이 지배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고 따른 사람들은 때로 그들의 재산과 유산과 집과 가정의 모든 특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단자로 사회에서 추방되어 기본적인 가족관계

마저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집에서는 대개 장례식이 거행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은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연고로 아내를 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꺾박을 곁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너는 나와 복음을 위해 꺾박을 받고, 네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부친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너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의 한 식구가 되어 수백배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 과 부친을 갖게 될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난 것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저는 제가 아는 청년의 결혼식에 가서 대기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에게 “복음을 좀 전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의 어머니가, “너 만일 집안에서 예수 얘기 다시 꺼내기만 하면 다시는 집에 오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신데, 우리 어머니에게 목사님께서 복음을 좀 전해 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될때 그 속에서의 풍성한 사랑과 긴밀한 유대와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가족의 한 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는 강한 결심으로 인해 혈연적인 친척들 사이에서도 소원해지는 일이 있지만, 우리는 그로 인해 더 큰 가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참 다행스런 일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물론 저에게는 주님을 모르는 친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보다 믿는 성도들에게 훨씬 더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은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안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있다고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완전한 일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10: 32-34)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며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어떤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저는 삼일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안하고 그 일을 시행하도록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빨간 제복을 입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한 이방인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에 채찍질한 자들도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또한 기록된 대로 그들이 예수님께 침뱉었으며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삼일만에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것은 나의 줄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35-40)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9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 오면서 제자들이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던 논쟁을 기억하십니까? 그 때 예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부끄럽고 무안해서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다시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아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높은 지위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10: 41-43)

이 얼마나 전형적인 모습입니까? 이들은 내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이교도들은 권세와 권력의 자리를 좋아했고, 사람들을 위에서 통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10:44-45)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고가 되는 비결, 머리가 되는 비결, 통치자가 되는 비결은 종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대함으로 가는 통로는 봉사’ (The path of greatness is through service)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 예수께 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또 사람들을 위한 일이란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 하시는 종으로서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함에 이르는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종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매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10: 46-48)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32 킬로미터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때에 길에 앉았던 소경 거지 바디매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소경들은 주변의 상황을 잘 감지합니다. 눈 이외의 다른 모든 감각기관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소경 바디매오는 떠들썩대는 사람들 가운데, “나사렛 예수”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아주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으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 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10: 49)

예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매오는 겹옷을 내어 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때 그가 입었던 겹옷은 당시 거지가 입던 전형적 옷차림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거지다’ 라고 밝히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겹옷을 벗어 버리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는 아마도 더 이상 거지노릇을 할 필요가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일단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의 눈이 볼 수 있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소경이 겹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 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 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10:50-52)

예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신 말씀으로 미루어볼때, 예수님은 바디매오가 자기의 거지옷을 버리는 것을 보셨던것 같습니다. 이에 바디매오는 곧 시력을 회복하고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입니다. 저는 알레고리 형태의 해석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만, 이 사건에서는 영적인 알레고리 (spiritual allegones :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어떤 기록의 객관적 의미보다는 상징적, 비유적 의미를 찾으려는 해석 방법의 일종 -역자주) 들이 아주 많이 끌어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마가복음 11장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벧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풀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겹옷과 다른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퍼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1: 1-10)

이 사건은 일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외침에 반박한 내용과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것을 보고 참람죄에 해당한다고 날뛰었던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때가 바로 예수께서 최초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때입니다. 제자들은 메시아 예언의 노래가 명백한 시편 118 편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시 118 : 22-26) 본문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막 11 :9-1) 이라고 외친 것은 메시아 예언의 노래인 시편 118 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무리들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송축하며 메시아의 노래를 부르는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눅 19:39-40)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9 : 9 의 예언,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 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 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새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1: 11-13)

이 때는 4 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입니다. 무화과 열매는 여름이 되기 전에는 잘 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2 월과 3 월에도 처음 익은 큼지막한 무화과 열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열매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하면 그 열매들이 잘 익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때, 그 속에 처음 익은 열매들이 몇 개 있을 것으로 생각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무화과나무에 다가가셔서 열매를 찾으셨으나 아무것도 없으므로 예수께서는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11: 15-16)

예수님과 제자들은 월요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도시 한 쪽에서 다른 한 쪽으로 가는 지름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건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과 임의로 성전을 통과하여 다니는것을 금하심으로써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공적인 사명을 처음으로 시작하실 때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에 대해서는 요한이 잘 기록하였습니다. 이 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에 해당하는데 , 예수님은 또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금지하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매매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매매하여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자들을 단호히 배척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그들은 환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로마돈을 부정한 이방인의 돈이라 하여 성전 금고에 넣지 못하게 하고, 유대의 ‘세겔’ 만을 용납하였기 때문에,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로마돈을 히브리동전으로 바꾸어 현금해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로마돈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릴려면 반드시 이것을 ‘세겔’ 로 환전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에 탁자를 놓고 앉아 성업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환전 과정에서 이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바가지를 씌우기 일쑤였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하나님께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기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제사장에게 검사받아 보증된 소위 ‘정결한’ 비둘기를 성전 안에서 판매하였습니다. 물론 성전 밖의 예루살렘 거리에서도 비둘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비둘기 제사는 소나 양을 바칠 여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밖에서 2 천원에 비둘기를 사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제사장에게 제사드려 달라고 하면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밖에서 산 비둘기를 이리저리 자세히 뜯어 본 후에 트집을 잡아, ‘ 이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으니 당장 가지고 나가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한편, 성전 안에서 파는 만원짜리 비둘기는 어떤 것이든지 제사장의 보증을 받아 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자들의 바로 그 열망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지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셨던 것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11: 17)

예수님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교인들을 사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들에 보내는 많은 편지들에는 거짓과 사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그들로부터 편지를 받으면 마음이 매우 상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11: 18-19)

예수님과 제자들은 월요일 밤에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11: 20-21)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물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열매를 받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부터 열매를 찾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5 : 1-4 에도 이스라엘로부터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던 열매를 맺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말라 비틀어져 죽을 형편에 이르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부터 포도원을 거두어서 좋은 열매를 생산해 낼 다른 민족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비유로 우리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간 내용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마 21: 33-42). 포도가 익을 때가 가까워져서 주인이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으나, 이번에도 전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나중에 주인은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면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 이들을 보고 서로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고 말하고는 그 아들을 잡아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여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 : 1-5)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게로 가셨으나 그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즉시 무 화과나무는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들과 제 삶으로부터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부터 얼마나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원에서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믿음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랍비여,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고 말씀드리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것이 이룰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11 : 22-24)

기도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큼니까? 지금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주목하십시오. 군중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관련하여 이 엄청난 약속들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 네 자신을 부인하라. 둘째, 네 십자가를 지라. 셋째, 주님을 따르라’ 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이 큰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합니다. 나는 그냥 믿고 말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오, 나에게 최신행 메르세데스 한 대가 있으면 좋겠다’ 라든가, ‘무인도에 별장을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다’ 거나,

‘요트가 한 대 있으면 좋겠다’ 거나, ‘내가 말만하면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가 되는 첫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네 자신을 부인하라.”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와 관련하여 약속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약속을 주장할 것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11: 25)

우리가 잘못된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실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로로,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므로 우리 자신이 용서받는다는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변경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에 대해 저도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의무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은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 23: 34)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저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입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아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냐?” (11: 27-28)

다른 교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젊은 목사들에게 다가와서 ‘누가 당신에게 세례줄 수 있는 권위를 주었길래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이요? 라든가, ‘누가 당신에게 목사가 될수 있는 권위를 주었소?’ 라고 말하는 것을 볼때 흥분하게 됩니다. 특히 이럴 때면 저는 도전받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들은 권위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열두 사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선지자로 여기므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1: 29-33)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 119: 11)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요 15: 3)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